2026학년도 입학 전형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폭 넓힌다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우리학교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이 발표됐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총 모집인원은 정원 내·외 수시 55%, 정시 50%로, 2025학년도 비율과 동일하다. 주요 변동 사항은 학교폭력 대입 반영, 정시 가산점 제도 변경, 수능 최저학력기준 변경, 학생부교과전형 지원 자격 변경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에 관련 징계 등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의무화됐다. 우리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사실'이 기재된 경우, 정량평가 방식으로 총점에서 각 호수(1호~9호)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최저 0점에서 최고 100점으로 반영하며 이는 전체 반영 점수의 최대 10%에 해당한다. 또한 학생부교과전형 학교장추천의 경우, '학교폭력사실' 4호 이상은 고교 추천에 제한을 둬 지원이 불가하다.

지난해 9월 입학처는 인터뷰를 통해 1호~3호에 해당하는 조치 사항은 감점 없이 대입에 반영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해당 호수의 조치 사항 역시 대입에 반영한다.

정시 가산점 제도 역시 변경 사항이 있다. 2025학년도는 일명 '문과침공' 현상을 줄이고 각 학과 특성을 고려하고자 자연계열 지원자 중 과학탐구 응시자와 인문계열 지원자 중 사회탐구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하지만, 2026학년도부터 인문계열 지원자 중 사회탐구 응시자들의 가산점 부여 제도를 폐지하고 자연계열 지원자 중 과학탐구 응시자에게만 과학탐구 한 과목당 가산점을 부여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학생부종합전형 의·약학 계열에 추가된다. 학생부교과전형 지역균형전형과 논술우수자전형 예술, 체육 계열 학과에서는 반영 과목을 축소한다. 이는 2025학년도까지는 한국사를 포함했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한국사를 반영하지 않는다.

학생부교과전형 지원 자격 역시 변경됐다. 2025학년도까지는 졸업생은 지원이 불가했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졸업생 역시 지원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는 인원수를 고교당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인원의 5% 이내의 인원으로 제한을 뒀지만, 고교별 인원 제한을 폐지한다.

입학처는 "일부 학과와 모집 단위는 무전공 선발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대교협 입학전형시행계획 심의 결과를 반영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안을 재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학교 양궁부가 제58회 전국남녀양궁종별선수권대회에서 총 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사진= 최희라 감독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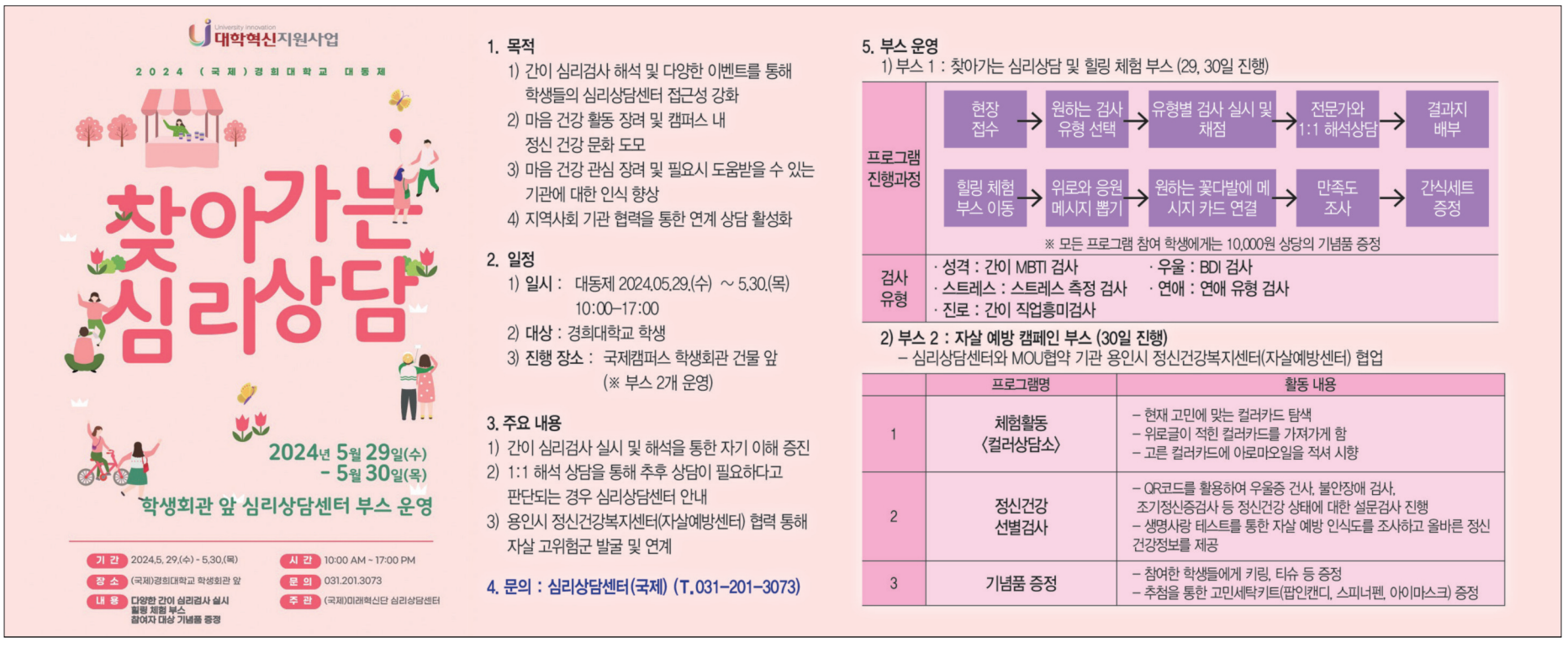
양궁부 여자단체전 대회 2회 연속 금메달 획득

장해린 기자 sunblessyou@khu.ac.kr

우리학교 양궁부가 제58회 전국남녀 양궁 종별 선수권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대회는 지난 4일, 충북 청주 김수녕양궁장에서 열렸다. 대회 대학부는 90m, 70m, 50m, 30m를 개인전, 단체전으로 나눠 진행한다. 여자부에선 염혜정(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가 60m에서 금메달과 70m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김예후(스포츠지도학 2020) 선수가 50m에서 금메달과 30m에서 은메달을, 김세연(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가 30m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또한 염혜정, 김예후, 김세연, 장미(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로 구성된 팀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작년에 이어 2회 연속 금메달을 따냈다.

남자부에선 김동현(스포츠지도학 2024) 선수가 30m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양궁부 최희라 감독은 "2024년 첫 경기였는데 작년에 이어 첫 단추를 잘 낀 것 같아 기쁘다"다며 소감을 전했다. 또한 "현재 기량이 많이 올라 있어 다른 경기에서도 많은 메달이 기대된다"며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